법화경 수지 독송은 '공양·불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㉖ 법공양

"아일다여, 이 경을 수지한 선남자 선여인들은 나를 위하여 굳이 탑을 세우고 절을 짓거나 승방 짓거나 음식, 의복, 침구, 탕약 등으로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만으로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되 높고 넓게 치솟아 범천에 이르고, 여러 번기와 일산과 보배 요령을 달고, 꽃과 향과 영락으로 꾸미고, 가루 향, 바르는 향 태우는 향과 여러 가지 악기로 춤을 추고 즐기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여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 되나니,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여, 만약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면, 그것이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단향 나무로써 서른두 채의 전각을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래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면, 다시 탑과 절을 짓거나 암자를 짓고 스님들께 공양할 필요가 없다.' 하느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다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아울러 모두 행한다면 더 말할 게 있겠느냐. 그 공덕이 가장 뛰어나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마치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상하에 한량없고 가없듯 하니,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끝도 없어서, 속히 일체종지에 이르게 되리라.

아일다야, 내 멸도한 후에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전을 능히 수지, 독송하는 자가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착한 공덕 갖춘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도량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가까워져 보리수 밑에 앉은 것이 되느니라. 아일다야,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서거나 걸어가는 곳이면, 거기에는 응당 탑을 세운 것이 되느니라. 그러면 모든 인간과 천신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라."

〈법화경〉은 어느 경전보다도 전문에 걸쳐 〈법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승(一乘)의 근본 이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 볼 수 있지만, 〈법화경〉을 모르면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식의 말이 나오고 심지어 〈법화경〉을 모르면 보살행을 닦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나 말세의 경우를 대비하는 이야기도 많다. 어떤 면에서 〈법화경〉은 '말세 중생을 위한 경'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본문 이야기도 〈법화경〉이 지니는 근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되고 또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법화경〉을 자신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書寫)하거나 남에게도 권하여 자기처럼 하게 하면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이른바 세속적 불사(佛事) 공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마치 〈화엄경〉 '보현행원품' 에서 법공양이 공양 중의 으뜸이라고 한 말과 뜻을 같이한다.

원효의 〈법화경 종요〉에는 〈법화경〉의 종지를 일승실상(一乘實相)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승의 수레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三乘)뿐만 아니라 삼계 사생의 중생 전부가 탈 수 있으며 이 일승을 타는 사람은 모두가 불자(佛子)가 되고 보살이 된다 하였다. 나아가 천제 성불론까지 내세웠다. 〈열반경〉에서도 내세운 천제 성불론은 비록 선근(善根)이 없는 중생이라도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불의 가능성이 없는 중생은 없다는 것이다. 원효는 〈법화경〉의 대의를 서술하면서도 "법화경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과 일체중생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밝힌 넓은 진리의 문"이라 하였다. 중생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천명해 놓은 이행도(易行道)의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할 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죄가 되지 않는 보살의 악행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㉖ 유가계(瑜伽戒)와 선교방편(善巧方便)

대승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존재로, 그에게는 두 가지 지향점이 있다. 즉,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空)인 것을 아는 반야(般若)의 지혜를 획득해야 하며, 현실 사회에서 그 지혜를 오롯이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전자는 상구보리(上求菩提)에 해당할 것이고, 후자는 하화중생(下化衆生)에 해당할 것이다. 후자를 보살행이라고도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悲心]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보살에게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보살행은 시작될 수 없으며,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면 보살행은 계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승 보살행은 반야의 지혜를 갖춘 보살이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승 경론에는 간혹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보살행이 묘사되어 있는데,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도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의 '계품(戒品)' 에는 4종의 타승처법(他勝處法)과 43종의 위범(違犯)이 설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중계(重戒)와 경계(輕戒)에 해당한다. 한편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는 출가 보살은 8가지 중계, 재가 보살은 6가지 중계와 48가지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또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모든 보살이 4가지 중계와 42가지 범사(犯事)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이처럼 보살계의 세부 항목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유식 계통의 경론에 설해진 계이므로 '유가계(瑜伽戒)' 라고 부른다.

4가지 중계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계인 성계(性戒)인 까닭에 모든 보살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계품' 에서는 재가 보살이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선교방편(善巧方便)을 행한다면 설령 악행을 하더라도 계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설한다. 다시 말해 보살이 다른 이를 위해 7가지 악행(살생, 도둑질, 음욕, 거짓말, 이간하는 말, 욕설, 꾸미는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악업이지만, 그 의도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보살이 어떤 재물 때문에 수많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를 본다면, 그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내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낫지, 이 중생이 무간업(無間業)을 지은 후에 지옥의 종착점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이 살생한다면, 그 보살은 계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계에서는 신체적 행위나 언어적 행위보다 의지적 행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선교방편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또 〈유가론〉의 '보리분품(菩提分品)' 에서는 선교방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한다. 우선 내적인 선교방편은 부처님의 속성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①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수반하는 관심이며, ②모든 행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며, ③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며, ④중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윤회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⑤모든 행을 여실하게 아는 것에 의지한 후에 염오(染汚)되지 않은 마음으로 윤회하는 것이며, ⑥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기뻐한 것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정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적인 선교방편은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①방편의 능숙함에 의해 보살이 작은 선근을 무량한 과보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며, ②작은 노력으로 광대하고 무량한 선근을 산출하고 초래하는 것이며, ③부처님의 교법(敎法)에 대해 증오하는 중생들의 증오심을 없애주는 것이며, ④부처님의 교법에 서 있는 중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⑤이해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것이며, ⑥이미 성숙한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승 보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방편에 능숙해져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②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중)

망념, 不覺의 무명 때문

불자 여러분! 이처럼 진여본성이 무념으로써 불생불멸하며 본래 청정함에도 불구하고 생멸하는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진여와 상응하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무명 때문입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서 아뢰야식은 생멸하는 인연상을 형성하여 제7말나식의 의(意)와 제6의식인 식(識)으로 전변합니다. 그러나 아뢰야식의 본체는 불생불멸의 진여본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아뢰야식은 '불생불멸 진여상과 생멸하는 인연상이 화합하여 하나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는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먼지에 쌓여있는 보석이 스스로 광채를 드러내지 않고 있더라도 보석은 여전히 보석인 것처럼 진여본성이 비록 무명에 가려져 아뢰야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중생의 마음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으로서 여래성이 내재되어 있는 진여본성이기 때문에 '여래장'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업을 짓고 윤회하는 주체인 이 아뢰야식 속에는 자신이 과거에 지어 놓은 선천적 기억정보와 훈습된 경험정보들이 한량없이 들어 있습니다. 선천적 기억정보 속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및 유전인자의 활동을 담당하는 생리적인 유전정보와 부모 조상 등에 의해 경험되어진 집단무의식 등의 업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이 스스로 지은 전생의 업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려면 부모님의 몸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가진 업력과 부모의 수많은 조상님이 지은 업력도 함께 나에게 유전 상속되어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 여래성 내재된 진여본성
윤회주체 아뢰야식 속 전생 업식 저장

불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영겁의 윤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은 착한 업과 나쁜 업의 종자식들이 아뢰야식에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뢰야식을 함장식(含藏識)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무념의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망념의 중생심을 함께 갖춘 이중성의 마음인 아뢰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번뇌와 오염으로 인해 인연에 따라 욕망을 일으키며 애착하고 심신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왜 마음이 번뇌로 요동치고 업을 짓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자식을 갖춘 제8아뢰야식은 진여본성에 순응하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마음 때문에 무명 업식이 일어납니다. 이 무명 업식은 보는 자인 능견상(能見相)과 보여지는 경계상(境界相)을 일으키며 마음을 이원화시킵니다. 아뢰야식의 이원화 작용에 의해 제7말나식은 아뢰야식의 능견상[能見相, 見分]을 자아로 여기고 '내가 나다' 라는 자기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7말나식을 '자아의식' 이라고 합니다. 이 제7말나식은 항상 무언가를 세심하게 사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무의식인데, 제6의식이 활동할 때마다 의근(意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인식작용을 할 때마다 마음 깊숙한 내면에서 항상 '내가 있다' 라는 아상과 아집을 일으키게 하여 자타(自他)와 주객(主客)을 이원화시키며 나와 남을 대립시켜 사량 분별하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들은 제7말나식에 의해 염염(念念)히 상속(相續)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작용을 할 때마다 기억이 생겨나고 영혼이 있다는 자아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다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의 작용 때문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의 작용에 의해 근본무명과 번뇌와 마음의 오염으로 인한 마음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장애는 끝없는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일으켜 근본번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애욕과 갈애(渴愛)의 욕망을 일으켜 삼독심에 물들게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7월 20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